

#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7년 2월 15일 · 제 395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김은수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유선로지스틱스유럽 마쓰이 자회사 인수로 유럽 사업 확장
2. Kintetsu World, 자회사 APL Logistic로 손실
3. 미국선급협회 LNG 벙커링 안내서 발간
4. 머스크 그룹, 2016년 4분기 순손실 기록했으나 2017년 시장수급 긍정적으로 평가

### | 물류시장동향 |

1. 2025년까지 북극항로를 통한 수송량 연간 7,500만 톤 예상
2. 머스크탱커스 중국 대련 조선소에 10척의 유조선 발주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유센로지스틱스유럽, 미쓰이 자회사 인수로 유럽 사업 확장

- 유센로지스틱스의 유럽법인(Yusen Logistics (Europe) BV)이 미쓰이의 자회사이자 자동차 물류기업인 Transfreight Automotive Logistics Europe을 인수하였다고 발표함
  - 유센로지스틱스와 Transfreight는 모두 크로스 도킹, 운송 및 제조시설 지원 및 운영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달라 두 회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유센로지스틱스에서 언급하였음
  - 유센로지스틱스유럽의 CRO인 Ian Veitch는 “고객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으나 집중 지역이 달라 유센의 인프라와 상호보완적이므로 유센로지스틱스에게 딱 맞는 거래”이며, “앞으로 고객들은 합동 조직의 산업 전문가와 다양한 공급체인솔루션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 Transfreight Automotive Logistics Europe은 미쓰이가 지분 약 70%, 후지트랜스가 30%를 보유하고 있었음
- 이번 인수로 유센로지스틱스는 북유럽과 남부 유럽 간의 복합운송 가능성 뿐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어, 기존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산업의 1차 공급업체와 OEM업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프랑스 북부지역에서 유센로지스틱스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센로지스틱스의 자동차 네트워크는 남북으로는 폴란드에서 포르투갈까지, 동서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영국으로 확대되었음
  - 현재 유센로지스틱스는 유럽에서 연간 600만 m³ 또는 1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78개의 물류시설에 4,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자료 : 유센로지스틱스 보도자료, 2017.2.2 / [automotivelogistics.media](http://automotivelogistics.media), 2017.2.1.

송주미 부연구위원  
051-797-4773,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intetsu World, 자회사 APL Logistic로 손실

- 일본 주요 포워딩 업체인 긴테츠 월드 익스프레스(Kintetsu World Express; KWE)는 APL 로지스틱스의 수요약화 및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67%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비난
  - KWE는 APL 로지스틱스의 영업권 상각액 및 기타 요소들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29억6천만 엔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매출액 3,490억 엔을 상쇄함
  - 2015년에 APL 로지스틱스를 인수한 KWE는 전년도 72.3억 엔 대비 23.8억 엔의 순이익을 기록함
- KWE에 따르면, APL 로지스틱스의 자동차 관련 물류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차량을 운송하면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소매, 소비재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자회사의 물류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자회사의 해상운송 사업 또한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APL 로지스틱스를 제외한 KWE의 매출 또한 유로화 및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로 인해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811억 엔을 기록함(1.9% 하락)
  - 미주 지역의 매출은 19.4% 감소한 320억 엔을 기록했으며,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은 225억 엔으로 15.5% 하락함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익은 568억 엔으로 17.6% 감소하였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의 매출 또한 7.3% 감소한 331억 엔을 기록함



자료 : [www.kwe.com](http://www.kwe.com)



자료 : [www.aplogistics.com](http://www.aplogistics.com)

자료 : [www.joc.com](http://www.joc.com), 2017.2.13.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mailto:kylee@kmi.re.kr)



## 미국선급협회 LNG 벙커링 지침서 발간

- 미국선급협회는 2월 1일 LNG 연료 공급 선박의 설계 · 건조 · 선적 시 기준이 되는 지침서 “ABS Guide for LNG Bunkering”을 발간
  - 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선박들은 아직 중유를 사용하여 운항 중에 있으므로 LNG 연료 공급 선박의 설계 · 건조 · 선적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지침서는 세계적으로 아직 발간된 적이 없었음
  -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에서 발간한 지침서는 LNG 벙커링 시스템을 정의하고, LNG 연료 공급 선박 설계 모듈, 리프팅 및 호스 조작방법, LNG 벙커링 충전소의 안전성 제고 방안, 긴급차단안전시스템 제어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음
  - 동 지침서는 2017년 1월 1일 발간되었다가, LNG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판으로 재 발간된 것임



LNG 벙커링 작업 광경



LNG 추진 해양경비선

자료 : [www.lngworldnews.com](http://www.lngworldnews.com)

- 국제물류에서 LNG 연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LNG 벙커링은 장래 실현 가능한 연료 보급 옵션 중 하나임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상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황함유량 0.5% 이하 연료유 사용 규제가 2020년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옵션으로 LNG 벙커링이 부상하면서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ABS 크리스토퍼 위어니키(Christopher J Wiernicki) 회장 겸 CEO는 앞으로도 ABS는 LNG 업계의 요구를 파악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이번 지침서 발간은 LNG의 저장 · 취급 · 수송 · 벙커링 등과 관련된 ABS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시 추가 발간을 검토 중에 있음

자료 : [www.marinavi.com](http://www.marinavi.com), 2017.2.9 / [www.lngworldnews.com](http://www.lngworldnews.com), 2017.2.3.

안영균 연구원  
051-797-4667, [ahn yg@kmi.re.kr](mailto:ahn yg@kmi.re.kr)



## 머스크 그룹, 2016년 4분기 순손실 기록했으나 2017년 시장수급 긍정적으로 평가

- 머스크그룹은 2016년 4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세계 최대의 선박량을 보유한 머스크그룹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성장 둔화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했음
  - 머스크그룹의 2016년 4분기 EBITDA는 15억 달러로 로이터가 전망한 20억 1,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함
  - 매출 역시 애널리스트의 당초 예상치인 95억 4,000만 달러보다 낮은 8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머스크그룹의 최고경영자인 Søren Skou는 최근 컨테이너 수급의 안정으로 인해 머스크라인이 올해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Søren Skou는 2016년 4분기의 컨테이너 시장 수요성장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급성장률을 넘어섰다고 밝힘
  - 또한 2015년 3분기 이후 컨테이너 신조선 발주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인도예정량 역시 최저수준이라고 덧붙임
  - 발트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BIMCO)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은 최근 20년 이상동안 최저수준의 신조선 발주계약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Søren Skou는 현재 수급 펀더멘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Søren Skou는 머스크라인의 2017년 실적이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Søren Skou는 사업 강화는 지속할 예정이나, 2016년 12월 발표한 함부르크수드 (Hamburg sud)의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계획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머스크의 브라질 석유 및 가스 사업 매각을 둘러싼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7.2.9 / [www.cnn.com](http://www.cnn.com), 2017.2.8.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mailto:shpark83@kmi.re.kr)





## 물류시장동향

### 2025년까지 북극항로를 통한 수송량 연간 7,500만 톤 예상

- 지질 및 석유가스석탄 매장지 개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바렌츠해에서 추코트카, 베링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구간을 통해 운송될 물동량이 연간 7,500만 톤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2016년 기준 전체 북극항로(북동항로+북서항로)<sup>1)</sup>를 통해 운송된 물동량은 1,800만 톤이며 북동항로(러시아 영해)의 물동량은 700만 톤 임
  - 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위원회의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개발이 확정된 북극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물동량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물동량은 지하자원과 프로젝트 화물이 될 것임
-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쇄빙선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 2022년 총 4척의 원자력 쇄빙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동량이 증가하면 쇄빙선 이용 또한 증가하여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임

자료 : tass.ru, 2017.02.13.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 머스크탱커스, 중국 대련 조선소에 10척의 유조선 발주

-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라인의 계열사인 머스크탱커스사는 중국 대련 조선소에 10척의 LR2(Long Range2) 유조선을 발주함
  - 이번 발주는 기존 노후선박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LR2 부문에서 강력한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일환이라고 밝힘
  - 이들 선박은 2019년부터 인도될 예정
- 머스크탱커스사는 이번 선박 발주로 향후 필요한 선박들은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올해 추가적인 선박 발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자료 : worldmaritimenews.com, 2017.2.9.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1) 북동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 해역의 북극항로이며, 북서항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캐나다 해역의 북극항로를 칭함



##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개최 안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권역별 발전 여건과 잠재력을 전망하고, 지자체별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해양수산과 지역, 국가 발전의 새로운 무대를 여는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표시하여 메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 2. 22(수) 13:00~18:00
- 개최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 해양수산부
- 참여기관 : 11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프로그램 : 초청장 파일 첨부

